

# 언어철학과 인문학

이규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전 문교부 장관)

한때는 역사학이 거의 모든 인문학들을 지배한 일이 있었다. 인문학들이 학문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문화는 역사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든 문화의 현상들을 역사적으로만 다루다가 보니까 그 하나 하나 현상들의 개성과 변화의 양상은 살릴 수 있었으나 역사주의는 결국은 상대주의를 통해서 허무주의에 빠져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역사주의의 해독에 가장 심각하게 빠져 들어간 것이 인문학들 중에도 초월적 사유를 요구하는 신학과 철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주의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문화의 창조자이며 또한 문화의 피조물인 인간 또는 인간의 마음을 인문학들의 근원으로 간주하게 되면서 심리학을 주목하게 되었다. 심리학이 인문학들의 근원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문학들이 심리학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서부터 심리주의는 다시 너무 주관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고 역사주의가 학문으로서 필요로 했던 초월성과 보편성도 지향하지 못하고 상대주의와 허무주의도 극복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상학은 그래도 심리주의의 토양 위에 자라면서도 초월성을 지향함으로써 상대주의와 허무주의를 극복하려고 했고 해석학은 역사주의의 토양에서 자라면서도 보편성을 지향함으로써 상대주의와 허무주의와의 밀착을 회피하려고 했다. 현상학과 해석학은 함께 이른바 과학주의를 회피하면서도 학문의 초월성과 보편성을 통한 절대적인 진리에 '접근'하려고 했다. 그러나 현상학과 해석학은 심리주의와 역사주의의 경향에 대한 비난을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종래의 역사학과 심리학에 대신해서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이 이제는 언어학이다. 인문학들의 대상인 문화의 기반이 되는 것은 막연히 역사도 아니고 혹은 인간의 정신만도 아니고 언어가 아니냐는 것이다. 학문의 기반으로 서 주체적이며 모든 문화의 상대적인 현상을 초월한 문화 현상의 보편적인 기반이 언어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언어학이 관심을 끌면서 이른바 언어학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종래 역사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은 해석학과 심리주의의 유산을

이어받은 현상학뿐만 아니라 실증주의적인 과학주의에 속했던 분석철학까지 언어에 대한 새로운 관심으로 새출발한 것 같다. 이른바 ‘언어학적 전환’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철학적인 경향이 아니라 세기말 철학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인문학만이 아니고 과학철학과 자연과학들도 새로운 언어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언어학이 이렇게 큰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물론 언어관이 변하면서부터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종래의 통속적인 언어관을 알아보고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언어관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하겠다.

흔히 우리는 언어 또는 말이라고 하면 어떤 물건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사실에 붙은 이름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물건들 중에는 자연적인 물건도 있을 것이고 만든 도구도 있을 것이다. 행동이라고 하면 손발을 움직여서 하는 동작도 있을 것이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웃는 것도 있을 것이다. 사실이라고 하면 사회적인 역사적인 사실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의례적인 사실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물건들이나 행동들이나 사실들에 붙은 이름이 언어라는 것이다.

이름이라고 하니 그러면 명사만이 언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되물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행동들 중에는 동작도 있을 것인데 그 동작에 붙은 이름은 명사가 아닌 동사가 될 것이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느끼는 그 자체에 붙은 이름은 형용사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언어는 물건이나 행동이나 사실에 붙은 이름 곧 다른 말들과 구별되는 꼬리표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언어는 객관적인 사물을 표시하는 이름들이라고 생각들 했었다. 물론 객관적인 사물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사물에 붙은 이름들도 역시 언어로서 표현된다. 인간의 희노애락도 언어로 표시되고 모든 표상도 언어로서 표시된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언어는 주관적인 심리의 세계와 객관적인 사물의 세계 안에 ‘있는 것’ 들의 이름이라는 것이다. 있는 것들이라기보다는 객관의 세계와 주관의 세계에 나타난 것들의 이름들이라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러므로 통속적인 언어관에 의하면 객관적인 세계와 주관적인 세계가 갈라져 있고 언어는 그 두 세계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름표 곧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는 주관의 세계와 객관의 세계 안에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언어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확성뿐이다. 그리고 언어는 그 언어 공동체 안에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속된 ‘틀’이기 때문에 그 뜻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 그러므로 언어가 그 정확성의 요청에 대응하기도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하게 새로운 기호들을 만들어 낼 수도 없는

일이다. 오늘날도 언어가 표시해야 될 새로운 사물들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호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새로운 사물을 일상 언어의 메타포적인 기능을 이용해서 표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면 4개의 책상다리를 위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는 것보다 책상의 '다리'라고 은유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메타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일상 언어를 넓게 지배하고 있다. 다리라는 것이 메타포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공간이니 하는 것도 메타포적인 표현들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관념적인 세계와 과학적인 사유의 세계에서도 메타포는 매우 넓게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언어관에 의하면 객관적인 세계와 주관적인 세계 사이에서 언어는 왔다 갔다 하면서 도구의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하나의 자주적인 중간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는 객관적인 세계에 나타나는 사물을 표시하는 이름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주관의 세계와 객관의 세계를 위한 도구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인 물론 어느 정도의 자율적인 과업을 맡은 중간 세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이 중간 세계의 자율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언어관의 매우 큰 변화가 아닐 수가 없다. 서양철학의 전통에 의하면 또는 서양의 철학이나 인문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들에서 늘 인간의 삶의 세계는 그 연구 대상이 무엇이든지 언제나 주관의 세계와 객관의 세계로 양분되어 있었다. 언어는 그 안에서 표시와 연결을 위한 도구의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새 언어관에 의하면 주관의 세계, 중간 세계, 객관의 세계의 세 영역으로 삼분화된다. 그러면서 주관의 세계는 중간 세계를 통해서만 객관의 세계를 투시하고 때로는 창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객관의 세계는 중간 세계를 통해서만 주관의 세계에 연결되고 삶의 세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제 언어는 정확성만이 요구되는 측량기계도 아니고 해부하고 분석하는 도구만도 아니다. 언어는 주관과 객관을 연결하는 중간위치에서 객관의 세계와 주관의 세계를 창조하는 더 주체적인 과업을 맡게 되었다. 독일의 어떤 교수가 언어철학 강의 시간에 우리 독일민족이 언제부터 제대로의 '그리움'을 느끼면서 살게 되었느냐고 질문했다고 한다. 학생들의 대답이 없자 그 교수는 괴테 이후부터라고 말했다고 한다. 물론 그리움이라는 말은 그전부터 사용되고 있었지만 괴테가 그의 시와 문학에서 쓴 그러한 그리움은 독일말을 하는 사람들은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다. 독일 사람들은 괴테의 그리움을 통해서 괴테가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리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리움은 단순한 이름도 아니고 다른 정서와 구별되는 꼬리표도 아니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도구도 아닌 것이다. 말의 위대한 창조적 힘이 여기에서 나타난다.

언어라고 하는 중간 세계의 자율성은 새로운 언어관의 의미론에서도 나타나고 또한 문법론에서도 나타난다. 이 의미론과 문법론은 아직은 보편화된 이론이라기보다는 앞으로의 발전적인 연구를 위한 가정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중간 세계의 자율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된다. 곧 의미론에서는 말의 의미는 그것이 표시하는 객관적인 사물의 또는 주관적인 표상의 본질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말들의 관계구조 안에서의 서로의 차이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란색은 노란 색깔의 무슨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붉은색, 검은색, 푸른색, 흰색, 누런색들의 상호관계에서 서로의 차이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몽고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은 눈들을 구별할 수 있는 말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곳에는 우리보다 더 많은 종류의 눈들이 내린다고 한다. 눈들의 차이는 현실로 파악되는 것보다는 말들의 차이를 통해서 더 쉽게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종래 우리의 언설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문장의 문법 규칙은 당연히 논리적 법칙을 따르는 것이라고 여겼었다. 그리고 문법의 규칙은 논리의 법칙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발전된 논리학의 연구에 의하면 논리적인 합법치성과 문법적인 합리성 사이에는 다시 큰 틈새가 있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것이 반드시 문법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며 문법적으로 옳은 것이 반드시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논리와 문법 사이에는 디스크레판즈(diskrepanz)가 있다는 것이다. 현대의 논리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프레게(Frege)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논리와 문법의 디스크레판즈를 우리의 일상언어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한다.

(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들이다.

(나) 카인과 아벨은 형제이다.

그런데 (가)의 문장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각각 철학자이면 두 사람 모두 다 철학자가 되지만 (나)의 문장의 경우에는 그렇게 설명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가)의 문장의 술어 철학자는 단독으로 철학자가 되는 한자리수 술어지만 (나)의 문장의 술어 형제는 단독으로는 형제가 될 수 없는 복합적인 술어로서의 형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장의 (가)와 (나)는 모두 똑같이 논리적이고 동시에 문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문장들이 탈구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언설에 있어서의 논리와 문법의 ‘디스크레판츠’에 대한 논리학의 발견은 사실은 논리학의 관심을 문장의 문법에 대해서 돌려준 것이다. 생활세계의 사물을 바르게 인식하는 데 있어서 언어의 역할을 더 확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쨌든 객관적인 세계의 사물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중간 세계로서의 언어의 역할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주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으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사유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주관에 속하는 이성의 법칙이라고만 믿었다. 그래서 논리학은 이성의 법칙으로서 주관의 세계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인간으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역할이 중간 세계에 속하는 언어의 문법에도 의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인간으로 하여금 바르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논리’만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문법의 역할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논리학의 법칙을 생각하면서 사유하는 일은 드물며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문법적으로 정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르게 생각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르게 생각하는 역할이 주관의 세계만의 과제라기보다는 중간 세계 곧 언어의 문법의 역할이기도 한 것이다. 언어는 이제는 주관의 세계나 객관의 세계를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연구의 진행에 따라서 하나의 주체로서 자율성을 점점 증대시켜가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하면 언어는 단순한 도구만이 아니고 자율성을 가진 주체라는 것이다. 슈프라하 덴켄(Sprachdenken), 즉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언어가 생각하여 말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우리의 언어관이 바뀌어지면서 언어학이 모든 인문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주체로서의 언어를 다루는 학문이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1963년에 어떤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논리학만 10시간 이상을 강의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철학을 강의할 때나 일상생활에서 사유할 때에 논리학의 규칙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 대신 나는 문장을 쓸 때에는 문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것이 나의 문장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데리다가 새 언어관에 의한 문법론을 들고 나왔을 때에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읽어보기 전에 이해할 것 같았다. 그것이 하이데거가 말한 “전이해”인지 모른다. 이와 같이 언어가 단순한 도구, 곧 주관의 세계와 객관의 세계를 비취주는 또는 주관의 세계와 객관의 세계를 연결해 주는 거울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인 창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주관의 세계와 객관의 세계에 의존만 하지 않는 자율성을 지닌 주체라면 언어학은 종래의 인문학들이 역사학과 심리학에 의존했던 것이

상으로 언어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학의 시대에 살면서 인문학의 연구에 헌신하고 있다고 말하고자 한다.

그러나 언어철학이란 하나의 독립된 학과가 아니고 현대철학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하나의 경향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이 언어가 이제는 도구의 위치를 벗어나서 주체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인간 주체나 객관적인 사물에 의해서 조정되는 타율성의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 변화된 새로운 언어관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러한 새로운 언어관을 토대로 한 언어철학의 대표적인 하나의 과제로서 데리다의 탈구축을 우리의 인문학들 또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학문들의 연구에 영향을 주는 한도 안에서 알아보려고 한다. 데리다가 그의 탈구축을 통해서 해체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서양 철학의 역사와 자연과학을 위시한 모든 학문들의 기반을 송두리째 해체해 버리려는 것인지 또는 그의 탈구축은 재구축을 위한 기초작업인지는 앞으로 두고볼 일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데리다가 또는 데리다의 탈구축 사상이 현대 서양철학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크고 서양철학의 전통에 대해서는 가장 혁명적인 사상임에는 틀림없다. 사실은 철학에 있어서의 이러한 해체작업은 계몽주의 철학자 칸트(Kant)가 시작해서 하이데거에 이른 것인데 칸트는 계몽주의의 취지에 따라서 서양철학에 내재해 있는 또는 기초가 되고 있는 형이상학을 해체하려고 했지만, 시간이라는 개념을 카테고리의 체계 속에 받아들임으로써 철학 세계의 '변화'의 가능성을 위한 문을 열었을 뿐 스스로는 형이상학을 탈피하지는 못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의 후반에서 형이상학의 해체를 시도하기는 했지만 결국 모든 존재에 대한 사유는 시간의 지평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형이상학의 원칙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했을 뿐이다. 칸트가 말한 어떤 카테고리도 그리고 그 체계도 영원불변의 원리는 아니고 시간 안에서 시간을 통해서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시간의 카테고리를 형이상학적인 체계를 건설하는 기초로 만들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이것으로 형이상학적인 체계의 기반을 허물어 버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그는 다만 형이상학의 기반 안에서 철학적으로 사유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데리다의 해체작업의 특징은 탈구축과 재구축을 동시에 시도하는 데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했는데 그러한 관점의 변화는 서구적이고 기독교적인 전통의 가치관들을 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칸트나 하이데

거처럼 말만으로 서구의 형이상학의 해체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 서구적인 철학의 전통에 뿌리깊이 박혀 있는 가치관들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니체와 같은 관점 전환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님은 죽었다는 기호적인 표현이 뜻하는 관점의 전환을 말한다. 데리다가 이와 같이 니체의 유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데에는 언어철학적인 연구가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서구의 철학뿐만 아니라 모든 인문학과 과학들의 기본개념들이 사실은 신화와 철학을 통해서 전승된 개념들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과학사 학자 쿤(Kuhn)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과학의 혁명적인 발전을 뒷받침한 것은 사실은 신화였다는 연구를 예로 들 수가 있다. 요즘은 보편적으로 모든 학문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패러다임 전환의 개념도 그의 연구에서 나온 말이다. 모든 과학들은 종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무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통속적인 이념이나 지배적인 가치관 또는 신화적인 언설들에 의해 밀받침되어서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발전될 것이라는 것이다.

과학적인 사유의 체계를 위해서 기초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실체'라는 개념이나 '시공'의 개념이나 '인과'의 개념이나 이 모든 개념들은 사실은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이며 따라서 근원을 따지고 보면 신화적인 개념들이라는 것이다. 미시세계를 연구하는 양자역학은 마지막 실재가 입자인지 파동인지는 관찰자의 입장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성격의 것이라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서로 상대적이라는 것은 상대성 원리 이후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인과율의 개념도 미시세계 안에서는 원인과 결과의 선후를 가리기가 어려워져서 통속적으로 이해되는 것처럼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자연과학들의 기본개념들이 거슬러 올라가서 따지고 보면 형이상학적인 성격의 것이며 원초적으로는 신화적인 성격의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과학철학과 언어철학의 연구를 받아들여서 형이상학적인 요소들을 해체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커지게 된 것이 데리다의 탈구축의 작업이다. 모든 형이상학적인 개념들과 전통적인 가치관들을 배재해 버리고 나면 남는 것은 허무의 입벌림뿐이기 때문이다. 니체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허무의 입벌림이라고 했는데 성경 창세기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가 모든 언어에서 형이상학적, 신화적인 요소들을 탈구축했을 때의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데리다의 탈구축은 관점의 끊임없는 전환을 통한 재구축일는지 모른며, 서양철학의 전통을 혹은 과학기술 문명의 핵심이 되는 모든 과학들을 철저히 탈구축하고 새롭게 길을 열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서양문화의 도덕적인 재건을 위해서 새로운 등불을 밝혀주고 서양문명의 신과학 운동을 통

한 방향전환을 위해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언어철학으로 따지고 보면 과학이나 철학이나 신학이나 예술이 모두 같은 언어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물론 말놀이의 규칙들은 서로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서로 다를 바가 없는 말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학적인 말놀이만이 신뢰할 만하고 영광을 차지해야 될 말놀이인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말놀이만이 거룩함을 독차지해야 될 말놀이도 아니고 철학적인 말놀이만이 심오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도 아니며 예술적인 말놀이만이 아름다움을 독차지하는 것도 아니다. 놀이마다 규칙이 다르듯이 이 말놀이들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 만나고 서로 높으로써만 발전해 갈 수가 있다. 우리 나라를 참다운 언어 공동체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민족공동체를 영원히 빛나게 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뿐이다. 특히 인문학의 말놀이들은 서로 다르면서도 가족적 유사성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 의존해서만 개발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우리의 공동체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백만 대군이 지키지 못하는, 한량없는 재부가 지키지 못하는 오늘 우리 공동체 생존의 길의 개척은 우리의 말놀이가 이룩해낼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의식으로 이룩되는 주관의 세계와 그 의식이 지향하는 객관의 세계와 이를 연결하는 언어의 중간 세계를 구별했으나 이것은 언어가 주관의 세계나 객관의 세계에 붙어 다니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주체성과 자율성을 가진 하나의 주체적 세계를 이룩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지 주관적인 표상의 영역과 객관적인 대상의 영역을 언어의 영역에서 분리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른바 언어학적 전환을 거의 모든 인문학들에 요구하게 된 현대의 언어철학은 주관의 세계와 객관의 세계를 중간 세계로서의 언어를 중심으로 불가분으로 연결시키려고 한다. 중간 세계로서의 언어가 없이는 주관의 세계와 객관의 세계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본질적인 불가분의 관계는 훗셀(Husserl)의 의식의 현상학보다도 가장 발전된 현상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메를로-뽕띠(Merleau-Ponty)의 '신체의 현상학' 또는 '지각의 현상학'에서 더 두드러지게 강조된다. 그의 주저 '지각의 현상학'에 나타난 그의 언어관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언어가 있기 전에 사유가 있고 말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관적인 표상과 객관적인 대상을 연결시키는 것이라면 어째서 사유의 표현을 사유의 완성이라고 보겠는가? 말하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이 곧 그의 사유인 것이다. 사유는 인간의 내면적인 것만이 아니다. 사유는 세계와 별도로 세계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를 잘못 이해하게 하는 것, 곧 언어를 통한 표



현 이전에 사유나 사상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은 침묵한 채 생각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이미 구성된 사상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면적 생활이라는 환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침묵이라는 것은 사실은 언어의 소리 없는 속삭임이며 내면적 생활이란 내면적 언어를 말하는 것이라고 메를로-뵘피는 주장한다.

언어에 담기지 아니한 순수한 사유는 일종의 의식의 공허한 순간의 기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언어를 떠난 사유는 단순한 추상이고 언어를 떠난 인격은 정체성이 없는 환상이며 언어를 떠난 삶은 역사가 없는 흐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어와 주관적인 사유와 객관적인 세계는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언어를 지키고 개발하는 것을 과제로 하는 인문학의 중요성을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칠 것이 없다. 우리의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인류의 보편적인 운명을 위해서 말이다. 뜻 있는 말, 힘있는 말, 생명 있는 말, 근원적 말을 우리의 언어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에 물려주어야 한다. 리피르(Ricoeur)는 “신화가 없는 민족의 문화는 망할 수가 있다”고 최근에 말하고 있다.

[Abstract]

## Philosophy of Language and the Humanities

Kyoo-Ho Lee

(Professor Emeritus, Yonsei University)

This article maintains that language not only connects the domains of objectivity and subjectivity but simultaneously occupies its own autonomous realm and creates the two domains as well. This means that the role of language in recognizing things in the universe is more important than we usually think, and that the system of language exists independently of the human thinking and objective reality. In this respect, study of language stands as a core subject in humanities, making itself a common denominator for full understanding of philosophy, theology, history, psychology, and arts.